

[로스쿨 합격기]

## 집념

### 이예리

- 공주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 I. 시작하며

일 년간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포기라는 말을 수십 번 마음속에 떠올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 년이 지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내 미래를 희망차게 다질 수 있다는 것은 그 포기라는 단어를 접어 두고 집념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롤러코스트 레일처럼 일 년간 열두 번은 더 요동친 제가 감히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오르락내리락 굴곡을 겪고 계신 수험생들 그리고 4기가 되어 희망을 한 아름 안고 계신 동기들과 저의 비범하진 않지만 기특했던 집념 이야기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 II. 지원동기

국민 인권을 수호하고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로스쿨 진학을 꿈꿨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제가 보고 느끼고 살아온 인생을 담아

제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학생 대표를 했습니다. 대표 임기 말에 즈음해 제 모교에서는 교내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학우들의 공감과 청소노동자들의 단결력으로 많은 부분 문제가 시정 되는 과정 속에서 로스쿨 진학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평균나이 70세를 넘긴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 제도, 노조 탄압에 대한 구제 방법, 용역회사와 학교 그리고 청소노동자들 간의 계약 관계 등 복잡한 법적 관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저는 그저 감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주변에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저는 법률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III. 과 정

#### 1. 학점

학점은 크게 뒤지지 않는 편입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학과 공부에 흥미도 있었고, 함께하는 친구들이 모두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었습니다.

학점은 제가 대학 생활을 얼마나 성실히 하였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로스쿨은 3년간 치치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장래성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성실함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만큼 학점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점은 대학에 다니면서 어떠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실천으로 옮겼는지 알리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들은 과목과 제가 받은 점수에 대해 면접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즘 학점 인플레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강의를 들어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점관리 잘하는 방법은 흥미가 높은 과목을 듣는 것입니다. 점수를 잘 주시는 교수님의 강의, 시험문제가 쉬운 강의를 골라 듣는 것보다는 흥미 있는 강의를 듣다보면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공부도 하게 되고 그 분야에 자신감도 생기게 되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2. 영어

영어 역시 학점과 마찬가지로 성실함을 보여 줄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합니다. 영어가 이 시대에 평가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혹은 직장을 다니면서 얼마나 자기 개발에 힘썼는지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이기에 고득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행학습을 하는 기간에도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새로운 진로 개척을 위해 영어와 제2외국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열심히 공부해서 고득점을 받는다면 합격에 보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토크 900점이 넘는 고득점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 3. 리트와 논술

리트 점수가 잘 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책을 꾸준히 열심히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시를 내일모레 앞둔 수험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12월말에 스터디를 구성했습니다. 스터디 구성원들과 2월에 있을 PSAT를 단체로 등록하였고 2개월간 자료해석을 뺀 두 과목을 1회전하고 중요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PSAT와 LEET는 다르지만 언어적인 접근 방식과 사고부분에서 처음 시작하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느낄 수 있었던 차분함이 공부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되살릴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 이후에는 기출 문제를 위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언어이해의 경우 PEET와 MEET를 포함해 지문을 나눠 하루에 3-4 지문씩 왜 그것이 답이고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회분을 시간 맞춰 풀어보고 자신이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것인지 스터디를 어떻게 꾸려가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것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회전 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문의 어느 부분에서 다섯 개 선택보기가 출제되었는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영어독해 공부를 할 때 but, by the way 혹은 so 같은 접속사 뒤에 중요한 힌트가 나온다는 풀이는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지문 각 단락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세 번째 회독에서는 앞에서 파악한 문제 유형들을 가지고 다른 문제 유형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리 논증의 경우 언어 이해의 진도에 맞춰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수를 정해 문제를 풀어 와서 서로 모르는 문제를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회독부터는 언어 이해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기

초 논리학 공부도 함께 하면서 수식으로 논리 구성을 해나갔습니다. 사건으로 이 과정 속에서 시중에 출판되고 있는 기출문제 풀이집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출문제를 여러 회독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다른 방식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리 논증 역시 서너 번째 회독에서는 같은 지문을 가지고 다른 문제를 만들어보는 연습들을 했습니다. 풀이 방식이 다르니 스터디원 모두가 다양한 문제를 가져와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회독이 늘어날수록 느끼는 점은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이 맥을 같이 한다는 것과 제가 자신 있어 하는 분야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늘 가는 데 실 가듯 언어와 추리는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과목만 하려 하지 말고 두 과목 모두 열심히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자신 있는 지문 먼저 효과적으로 풀기 바랍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험 후 후회스러움에 몸서리칠지도 모릅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각 분야에 중요한 서적을 한권씩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읽은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기적 유전자를 읽은 후 생물학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문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책 읽는 것에 쫓기면 안 되지만 머리 식힐 겸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논술의 경우 저는 시험 전 두세 달 전부터 LEET기출문제와 학부 입시 기출문제들을 일주일에 하나씩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소수 정예 스터디에서 서로가 쓴 글을 읽어보고 논리 구성을 지적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글 쓰는 것은 연습만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라도 한번쯤 꼭 써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시간 내에 시험지에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 4. 자기소개서와 면접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로스쿨 입시 전형에서 정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쓰기 전에 제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역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의 일부를 보여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을 모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를 했다, 리더십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다라는 말보다는 오케스트라가 없었던

학교에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현악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과거에 현악부를 했던 나를 중심으로 방과후 오랜 연습과 끊임없는 서로의 독려로 연주회를 마쳤고 이에 감명 받으신 교장 선생님께서 현악부 구성을 허락하셨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예를 들어 구성하는 것이 저에 대해 잘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소수정예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을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면접을 봤고, 추가적으로 하루는 토론을 했습니다. 다녀보니 방법만 안다면 스테디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자기소개를 녹화해 직접 보면서 면접관의 시선으로 자세 교정을 하고, 주기적으로 면접 기출문제를 돌아가면서 감독하고 맞질문을 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자세 교정과 떨지 않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표현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시각을 정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있었던 사회적 이슈부터 낙태, 사형같은 전형적인 토론문제까지 찬반 의견을 정리하고 제 자신의 의견을 적은 면접노트를 만들었습니다. 5분 안에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논리 구성을 하고 추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안도 준비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은 흔히 리걸 마인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합니다. 저는 법적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법조계가 가진 시선들,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신문 사설 일 년 치를 모아 그 주제에 따른 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 III. 마치며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요인은 예상보다 낮았던 LEET 점수였던 것 같습니다. LEET 고득점자들 사이에서 위축되지 않기 위해 집념 하나로 면접을 준비했고 제 생각을 하나하나 손수 정리한 친필 노트와 수백 번 고친 자기소개서가 전화위복을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는 일 년간 수많은 유혹과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친구입니다.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스터디 친구입니다. 심적 유혹이 있을 때마다 초심을 상기시켜주고 다른 성격 다른 공부 방식들이 서로에게 자극이 되어 끝까지 같이 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스터디를 하다보면 공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공부를 해서 더 오래 좋은 인연으로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집념 하나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진심어린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